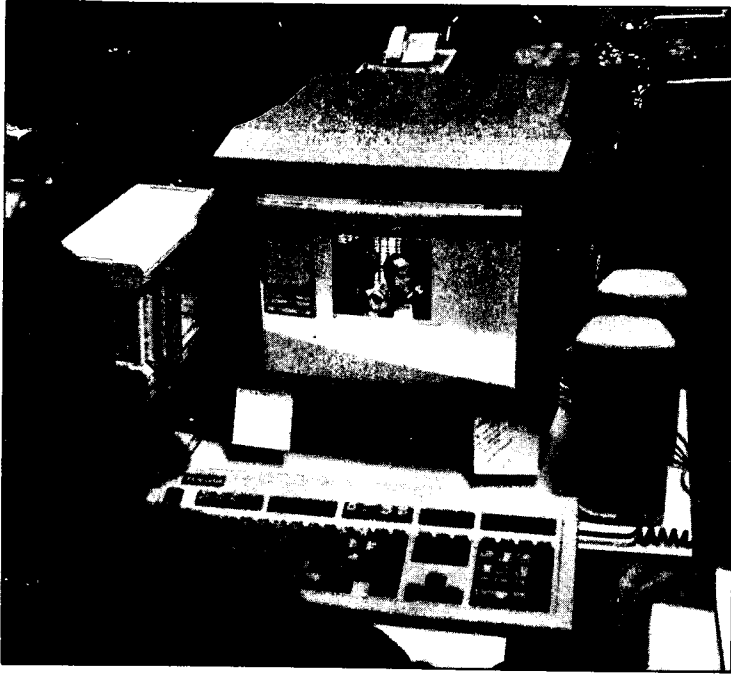


1914년부터 1991년까지의 1만 9천여개 영화정보를 CD-ROM 한장에 수록,  
문자정보에 1천장이상의 인물과 실제장면 스틸사진, 중요장면의 대화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

영화 「대부」의 대표적인 검색화면  
선택에 따라 주요 대화내용이 음성으로 들린다.



### 이영신의 CD-ROM산책

『마이크로소프트 시네매니아(Microsoft Cinemania)』

“영화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임이 잦아지는 계절이다. 상쾌한 대화가 오고가는 즐거운 모임에 잘 어울리는 화제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공유할 수 있는 주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영화만큼 적

당한 애깃거리도 없다. 주위를 둘러보면, 영화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는걸 느끼게 된다. 자칭 타칭 영화광들이 적지않다. 영화는 대중들과 가장 가까운 오락이자 『예

술』인 것이다.

이달에 소개될 CD-ROM 타 이틀인 『마이크로소프트 시네매니아』는 『영화광』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는 그대로이다. 영화를 좋아하는 이들 누구에게나 흥미

로울 정보로 가득차있다. 시네매니아는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영화를 즐기는 보통사람이 몇시간을 얘기해도 막히지 않을, 재미있는 얘기말천을 제공해줄 것이다.

윈도우에서 운용되는 시네매니아는 1914년부터 1991년까지 제작된 1만9천여개의 영화, 3천여명의 영화인, 영화에 관련한 각종 주제, 영화용어 등에 대한 정보를 CD-ROM 한장에 담았다. 우선 수록된 정보를 살펴보자. 간략한 영화개요, 별의 갯수로 매긴 등급, 관람등급(PG, PG-13, R등), 컬러여부, 비디오 시판여부, 상영시간, 수상여부 등이 1만9천개의 영화 모두에 대해 주어진다. 745개의 영화에 대해서는 영화줄거리요약, 평론, 제작배경, 연출연진 등을 포함하는 자세한 정보가 주어진다. 감독, 배우 등 영화인의 경우, 사진과 이력뿐만 아니라 출연(또는 감독)한 영화들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보여준다. 영화백과사전에서 뽑아낸 영화관련 주제별 기사모음, 연도별·부문별 아카데미상 수상정보도 볼 수 있다. 이밖에 1천장이 넘는 인물사진과 영화스틸, 영화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중에서 골라낸 1백여편의 대화토막, 그리고 영화용어사전도 있다. 미국영화중심으로 수록되어 있지만 지명도가 높은 영화일 경우, 유럽영화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아무리 담겨진 정보가 유익하고 흥미로와도 이러한 정보들에

접근하여 원하는 것을 찾아보는 방법이 어렵다면 그 정보의 효용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진다. 사용자들이 불편하다 못해 인쇄심의 한계를 느낄 정도라면 그 타이틀의 생명은 끝난거나 마찬가지이다. 그 안에 담겨진 정보는 사장되기 십상이다. 이렇듯,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면에서 시네매니아는 일단 합격선안에 들만 하다.

많은 타이틀의 경우, 우리말로는 『길찾아가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navigation기능이 아직 취약한 편이다. 이에 비해, 시네매니아는 둘러보기가 쉽다.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하이퍼텍스트」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정보로 이동하기가 꽤 자유롭다. 또 자신이 여태까지 걸어온 「검색발자취」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언제라도 이전에 검색했던 정보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쉽게 길을 잃지 않는다. 시네매니아의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 주요한 방법 몇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색인(Index)』 메뉴로 들어가서 찾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영화색인(Movies), 인물색인(Biographies), 주제색인(Topics), 그리고 이 모든것을 한데 모아놓은 종합색인(Full Index)이 있다.

『영화색인』을 선택하면 영화제목들이 알파벳순서로 목록상자(list box)에 떠오른다. 원하는 영화를 찾아내는 방법은 두가지

이다. 첫째, 목록상자의 스크롤 바를 조절하여 원하는 제목부근으로 이동한다. 둘째, 목록상자 상단에 나와있는 텍스트입력란에 원하는 영화제목을 입력한다. 제목의 철자들을 입력하는 순간 영화목록은 그 철자부근으로 자동이동된다.

예를 들어, ben이라고 입력하기 시작하자. Ben으로 시작되는 제목들이 목록상자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벤허(Ben-Hur)』가 보이고 저 아래에 『벤지(Benji)』도 보인다. 벤허라는 영화는 1926년에 제작된 것과 1959년것 2개가 나타나 있다. 우리에게 더 친숙한 1959년의 벤허를 선택하여 들어가 보자. 선택방법은 두가지이다. 첫째, 영화제목을 한번 클릭하여 파란 네모상자를 둘러썬 후 『그 주제로 가라 (Go to Subject)』는 명령단추를 클릭한다. 둘째, 영화제목을 더블클릭한다. 벤허가 선택되면 우선 주인공이 노예선에서 노를 젓고 있는 장면이 화면에 나타난다. 영화장면 밑에는 마이크모양의 아이콘이 있다. 그 아이콘을 크릭하면 영화중의 대화 한토막이 흘러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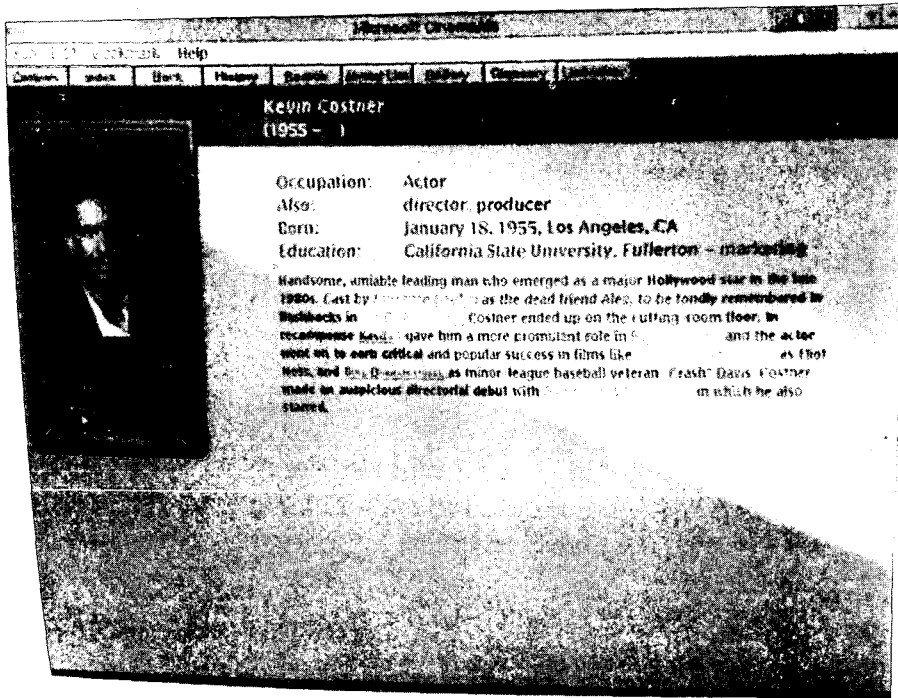
벤허는 워낙 지명도가 높은 작품이므로 간단한 개요, 시놉시스, 평론, 제작배경, 수상이력, 출연진, 등 꽤 많은 정보가 주어져 있다. 정보를 열람하다보면 곳곳에 파란색으로 역상된 채 밑줄이 그어진 단어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찰턴 헤스턴, 윌리엄 와일러같은 영화인 이름 또는 퀴바디스같은 영화제

목들이다. 그 파란단어를 클릭하면 곧바로 그 단어가 주제인 항목으로 이동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인물색인』에 있는 찰턴 헤스턴에 관한 정보나 『영화색인』에 있는 퀴바디스라는 영화에 관한 정보로 단결음에 점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이퍼텍스트』 기능이다. 다시말

시네매니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능중 하나일 것이다.

색인찾기에서 또 하나 맛볼 수 있는 기능은 검색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다. 영화의 장르, 감독이름, 배우이름, 제작년도, 관람등급, 아카데미상 후보 또는 수상여부, 별갯수 등의 조건들을 가지고 검색범위를 좁힐 수

는 별을 4개이상 받은 영화, 또는 관람등급이 R인 영화들로 검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을 가할 때에 키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선택할 수 있는 조건들이 목록상자에 모두 나오므로 마우스조작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처음에 시네매니아를 설치하면 모든 영화를



미국배우 케빈 코스트너의 인물사진과 함께 그의 자세한 이력이 실려있다.

해, 기존의 보편적 검색방식인 순차적접근(linear access)이 아니라 원하는 정보로 답숨에 다가갈 수 있는 이른바 random access(아직 적절한 국어표현이 확립되지 않아 영어로 표기함을 양해바람)를 가능하게 해준다. 아마도 이 하이퍼텍스트 기능이

있다. 그러면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색인이 즉석에서 새로 만들어지고 그 색인을 대상으로 검색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르는 스파이영화, 감독은 존 글렌, 배우는 로저 무어로 제한 할 수 있다. 또

대상으로 색인이 만들어져있다. 따라서 특별히 관심있는 장르나 감독이 있다면 원하는 범위를 새로 지정해놓고 검색을 시작할 수 있다.

『인물색인』에서는 영화인의 이름을 알파벳순으로 목록상자에 보여준다. 원하는 사람을 선

택하면 사진과 이력(biography)을 보여준다. 또한 출연했거나 감독한 영화를 연도순으로 정리하여 보여주는 filmography라는 기능도 있다.

『주제색인』은 영화와 관련된 주제들이 알파벳순으로 정리된 색인이다. 예를 들어 20세기 폭스社, 덕 트레이시 시리즈, 클로즈업, 공포영화, 표현주의 등이 주제로 등장하며 나라이름도 주제로 나와있다. 나라이름을 선택하면 그 나라의 영화사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한국을 선택하면 단성사, 하길중, 이창호, 배창호, 배용근, 피막, 몰레야 몰레야, 아제아제 바라아제 등 등 낯익은 영화인이나 영화제목들이 등장하는 한국영화사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네매니아는 텍스트외에 영화인의 사진, 영화장면, 그리고 대화토막도 담고 있다. 『갤러리』라는 메뉴는 이러한 텍스트이외의 매체들에 접근하게 해준다. 여기에는 우선 매체별 색인과 모든 매체를 한데 섞어 놓은 색인이 있다. 즉, 인물사진모음(Portrait), 영화장면모음(Movie Stills), 대화토막모음(Dialogue), 그리고 모든매체모음(All Media)이라는 색인들이 주어진다. 마이크, 사진기, 무비카메라 등을 상징하는 작은 그림이 매체의 종류를 상징하는데 이들은 영화제목이나 영화인이름과 함께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진기그림과 폴 뉴먼이 함께 나타난 항목을 선택하면 폴 뉴먼의 사진을 볼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그 주제로 가라』는 명령단추를 클릭하면 폴 뉴먼의 주제로 등장하는 인물색인의 텍스트정보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시네매니아가 제공하는 다른 기능들과 이용법도 간략히 살펴보자. 『수상목록(Award List)』이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1927년부터 1991년까지의 아카데미상 전 부문 후보와 수상자(작)가 연도순으로 나타난다. 물론 사용자가 특정 연도를 선택하여 단숨에 그 해의 아카데미상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부문을 선택하여 특정 부분의 후보자와 수상자가 연도순으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용어 풀이(Glossary)』 메뉴는 각종 영화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해주는 사전에 접근하게 해준다. 『검색(Search)』메뉴는 색인찾기와는 다른 검색법을 제공한다. 이것은 흔히 키워드 검색이라고 알려져있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단어나 구(phrase)를 입력하면 그 단어나 구를 본문에 포함하고 있는 자료가 모두 검색된다. 이러한 방식을 전문용어로 하면 자유어검색(free-text search)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폴 뉴먼』을 입력했을 경우, 폴 뉴먼이 본문중에 한번이라도 언급되는 자료는 모조리 검색되므로 189개의 자료가 검색결과로 나타난다. 이는 인물색인에서는 『폴 뉴먼』을 입력할 경우, 폴 뉴먼이 『주제』로 등장하는 단 한건의 자료가 검색된다는 사실과 대조를 이룬다. 색인찾기와 키

워드검색은 이렇게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시네매니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그 검색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위에서 설명된 주요기능들외에도 사소해 보이지만 익혀두면 상당히 유용한 부대기능들이 몇가지 더 있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래픽으로 표현된 것을 말로 풀어 설명하다보면 실제보다 훨씬 더 어려워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의 설명이 시네매니아 이용법을 실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도록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떨치기 힘들다. 『百聞이 不如一見』이다. 하루빨리 멀티미디어 PC가 널리 보급되어 독자들이 시네매니아를 직접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 곧 시판될 시네매니아의 업그레이드 버전에는 동화상(Motion Video)이 추가된다고 한다. 새로이 단장한 시네매니아를 만나고 싶은 기대로 한껏 부풀어가는 마음이다.

---

필자 이영신은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정보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는 조선일보사 전산본부 뉴미디어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